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에 관한 재사고(再思考)

친 광 (수도사범대학)

【발표요지】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이동) 경험은 1840년대 이후 중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교통 도구의 출현이 그 중 하나이다. 동시에 여성의 모빌리티는 그 사상이 폐쇄에서 해방으로 이행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예로부터 장려되어 왔던 ‘深居閨閣’(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여성의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도덕관은 역으로 여성의 불개화(不開化)의 근원이라고 하여 비판되기 시작했다. 이를 대신해 폐쇄상태로부터 해방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칭송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모빌리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관시되고 미화되어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빌리티에 대한 칭송은 역사기술 면에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과 학자가 진보와 해방과 같은 현대성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자체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던 언론패권의 역사적 틀이 있었다. ‘해방’과 ‘억압’의 내용은 그러한 언론패권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그 현대성과 정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중국사회와 여성의 개혁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사상과 사회와의 사이에 엇갈림이 생겨 여성이 희생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라는 과제의 역사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방’된 후 여성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여성이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과 ‘억압’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경력】

친 광/秦 方/Qin Fang (수도사범대학 역사학원 준교수)

학력 : 2005~2011, 미네소타대학, 박사 학위

2002~2005, 남개대학 역사학원, 석사 학위

1998~2002, 남개대학 역사학원, 학사 학위

주요논문 :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근대의 〈七出〉〈三不去〉 언론의 변천」 『婦女研究論叢』, 2018년 12월 제6호. (이 논문은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9년 제2호에 전재.)

「만들어 진 呂碧城: 청말 여성의 공중 이미지의 형성과 전파」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년 3월 제2호. (이 논문은 『歷史와 社會(文摘)』 2018년 6월 제2호,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8년 8월 제4호, 『新華文摘』(인터넷版) 2018년 제14호 등에 전재.)

「유포에서 가출로: 청말민초 여성의 궁경: 해방에 관한 언론의 형성과 실천」 『婦女研究論叢』, 2017년 7월 제4호. (이 논문은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7년 10월 제5호, 『新華文摘』(인터넷版) 2018년 제5호, 남개부녀·성별사 학술포럼(인터넷版)에 전재.)

Co-authored with Emily Bruce, “Our Girls Have Grown Up in the Family”: Educating German and Chinese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1, 2016; Later the revised version was collected in *A History of the Girl: Formation, Education, and Identity*, edited by Mary O’Dowd and June Purvis,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3-122.

「근대 반전족 언론하의 시각과 차이: 19세기 말 天津天足會를 중심으로」 『婦女研究論叢』, 2016년 5월 제3호. (이 논문은 『歷史記述에 있어서의 여성의 말 건축: 중국부녀/성별사연구발취』(中國書籍出版社, 2017년)에 전재.)